

# 대학생의 SNS중독 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구혜자<sup>1</sup>, 이외선<sup>2\*</sup>, 홍민주<sup>2</sup>  
<sup>1</sup>경성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and in College students

Gu Hye Ja<sup>1</sup>, Lee Oi Sun<sup>2\*</sup>, Hong Min Jo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yuns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대학생 198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148, p<.05$ ),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34, p<.001$ ),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459,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정도가 낮고 대인관계 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현정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SNS중독경향성을 낮추고 자기표현은 높이며 대인관계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NS addiction tendency, self-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198 student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0 to 12, 2013.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2. The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assertiveness( $r=-.148, p<.05$ ) and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 $r=.434, p<.001$ ). Self-assertivenes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 $r=-.459, p<.001$ ). The higher the SNS addiction tendency, the lower the self-assertiveness and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problems. The lower the self-assertiveness,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problems. Therefore, to decrease the SNS addiction tendency, increase the self-assertiveness and decrease the interpers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

**Keywords** :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s, Self assertiveness, SNS addiction tendenc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1,2]. SNS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된다[3]. SNS는 손쉽고 간편하게 인맥관리를 하게 해주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소통의 장으로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의 노출, 대화의 단절 등의 역기

\*Corresponding Author : lee oi sun (Changshin Uni)

Tel: +82-55-250-3174 email: leeosun@daun.net

Received December 21, 2015

Revised (1st March 9, 2016, 2nd March 28,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능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스마트폰의 중독자의 77%가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목적으로 SNS를 꼽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SNS인 것으로 나타났다[4]. SNS가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즐거움을 통해 중독성을 높이며, 이중 대학생의 중독성이 높는데 이는 친구의 반응과 우정에 민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5]. 사회적 면대면 관계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며, 물리적인 거리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요구하는 반면, SNS는 그러한 스트레스 없이 상당히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 및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대인 관계를 유지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6]

SNS중독경향성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 등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선행연구에 의하면[5] SNS중독경향성은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고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자기표현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8], 자신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우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 결과 자기표현을 잘 할수록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잘하며[8]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9]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현을 잘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면대면 관계에서의 자기표현을 줄어들게 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대인관계 문제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 것으로 [11]. 대학생 시기의 친밀한 대인관계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기상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7]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

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욱 더 중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SNS를 주요 이용하는 대상이 20대 대학생으로[12]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의 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들 관계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을 낮추고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대학생 남녀 230명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훈련된 연구 보조 인력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표본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G power program으로 효과크기를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설정하였을 때 172명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탈락율 20%를 고려한 결과 172명/(1-0.2)=215명으로 나와, 총 23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하고 최종 1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스마트폰 사용 유무, SNS 사용유무, SNS 사용이유, SNS 하루 접속량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2.3.2 SNS중독경향성 측정도구

SNS중독경향성 측정도구는 Young[13]이 제작한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 8문항과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4]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K 척도 20문항을 토대로 Oh[15]가 수정한 도구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Oh[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2.3.3 자기표현 측정도구

자기표현척도는 Rathus[16]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표현척도(Rathus Assertive Scale; RAS)를 Chun[17]이 수정한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un[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2$  이었다.

### 2.3.4 대인관계문제 측정도구

대인관계문제는 Kim 등[18]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KIIP-C)를 Kim 등[18]이 수정한 도구로 3개 하위영역 총 40문항으로 동조성 11문항, 공격성 6문항, 회피성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8]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도의 대학생 남녀 230명에게 훈련된 연구 보조 인력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2일 까지였으며, 배부된 23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2부를 제외한 최종 198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표본 선정 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32명(66.7%), 남자가 66명(33.0%)이며, 학년은 3학년이 117명(59.1%)로 가장 많았고, 1학년 66명(33.3%), 2학년 10명(5.1%), 4학년 5명(2.5%)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유무에 관한 질문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191명(96.5%)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7명(3.5%)이었다. SNS 사용 유무에 관한 질문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179명(90.4%)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18명(9.1%)이었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최근 변화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70명(35.4%)로 가장 많았고, 연락되지 않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36명(18.2%),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19명(9.6%), 나의 일상사를 게시하기 위해 17명(8.6%),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 13명(6.6%), 타인과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와 기타가 각각 12명(6.1%) 순으로 나타났다. SNS 하루 접속량은 하루에 5회 이상 90명(45.5%), 한 시간에 1회 이상 41명(20.7%), 하루에 4회 이하 32명(16.2%), 하루에 1회 12명(6.1%), 접속하지 않는 경우가 4명(2.0%) 순이었다 [Table 1].

## 3.2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은 5점 만점에 2.22점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8)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66	33.0
	Female	132	66.7
Grade	1st	66	33.3
	2nd	10	5.1
	3rd	117	59.1
	4th	5	2.5
Smartphone use	Yes	191	96.5
	No	7	3.5
SNS use	Yes	179	90.4
	No	18	9.1
The reason why using SNS	It can be seen in real time of the latest change in the other	70	35.4
	All others use it, not to be left behind	13	6.6
	For entering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s	19	9.6
	In order to post my daily private article	17	8.6
	Come and meet friends did not contact	36	18.2
	In order to check the response to others' posts, or my posts etc	12	6.1
SNS Daily amount of access	More than once per hour	41	20.7
	Five times more per day	90	45.5
	Less than four times a day	32	16.2
	Once a day	12	6.1
	Do not connect that	4	2.0

Table 2. Degree of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N=198)

Variables	Categories	Mean±SD
SNS addiction tendency		2.22±.74
Self assertiveness		3.14±.35
	Total	2.37±.46
Interpersonal problems	Conformity	2.47±.50
	Avoidant	2.17±.61
	Aggression	2.47±.50

로 나타났고 자기표현 정도는 5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는 5점 만점에 2.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동조성과 공격성 2.47점, 회피성 2.1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 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은 SNS 사용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SNS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2.16, p=.032$ ).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4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표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2.97, p=.03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유무( $t=2.08, p=.039$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 3.4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148, p<.05$ ),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434, p<.001$ ).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문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459, p<.001$ )[Table 4]. SNS중독경향

**Table 3.**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Variables	Categories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11±.70	-1.47	3.15±.33	.45(.478)	2.11±.70	-1.467
	Female	2.27±.75	(.452)	3.12±.36		2.27±.75	
Grade	1st <sup>a</sup>	2.37±.67		3.06±.28	2.97(.033) a<d	2.41±.44	.46(.709)
	2nd <sup>b</sup>	1.94±.69	1.75	3.06±.32		2.38±.48	
	3rd <sup>c</sup>	2.16±.75	(.158)	3.17±.36		2.27±.49	
	4th <sup>d</sup>	2.10±1.16		3.46±.59		2.37±.46	
Smartphone use	Yes	2.27±.73	-.33	3.13±.34	-1.25(.213)	2.38±.45	2.08(.039)
	No	2.31±1.02	(.741)	3.30±.51		2.01±.58	
SNS use	Yes	2.26±.70	2.16	3.12±.34	-1.17(.242)	2.38±.45	1.13(.271)
	No	1.86±.94	(.032)	3.22±.44		2.22±.59	
The reason why using SNS	It can be seen in real time of the latest change in the other	2.35±.65		3.10±.33		2.42±.44	
	All others use it, not to be left behind	2.14±.90		3.16±.26		2.23±.54	
	For entering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s	2.22±.65		3.10±.25		2.32±.42	
	In order to post my daily private article	2.31±.65	.51	3.07±.28	.99(.434)	2.43±.46	.20(.976)
	Come and meet friends did not contact	2.14±.79	(.789)	3.18±.34		2.38±.45	
	In order to check the response to others' posts, or my posts	2.15±.63		2.97±.35		2.39±.30	
etc	2.33±.72		3.24±.55		2.38±.45		
SNS Daily amount of access	More than once per hour	2.50±.74		3.14±.23		2.37±.50	
	Five times more per day	2.24±.65		3.14±.37		2.35±.42	
	Less than four times a day	2.09±.68	2.12	3.00±.38	1.30(.271)	2.50±.41	.85(.495)
	Once a day	2.14±.83	(.081)	3.19±.29		2.45±.50	
	Do not connect that	1.88±.64		3.09±.23		2.23±.26	

**Table 4.** Correlations of SNS addiction tendency, Interpersonal problems and Self assertiveness (N=198)

Variables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r(p)	r(p)	r(p)
SNS addiction tendency	1	-.148(p<.05)	.434(p<.001)
Self assertiveness	-.148(p<.05)	1	
Interpersonal problems	.434(p<.001)	-.459(p<.001)	1
Conformity	.250(p<.001)	-.066(p<.001)	
Avoidant	.437(p<.001)	-.467(p<.001)	
Aggression	.250(p<.001)	-.066(p<.001)	

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동조성, 공격성( $r=-.250, p<.001$ ), 회피성( $r=.437,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동조성, 공격성( $r=-.066, p<.001$ ), 회피성( $r=-.467,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대인관계문제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SNS중독

경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G도의 대학생으로, SNS중독경향성 정도는 2.22점(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9]의 연구 1.70(범위 1-4점), Yan[20]의 연구 1.88(범위 1-4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은 SNS 사용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나 선행연구[7]에서 성별, SNS 접속빈도, SNS 이용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추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표현정도는 3.14점(범위 1-5점)으로

Cho[10]의 연구에서 남자 2.56점, 여자 2.48점(범위 1-4 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표현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학습 가능한 것으로[10] 대학생의 자기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는 4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표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혼란된 현상으로 보이며, 또한 4학년의 경우,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적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표현이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는[1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표현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는 2.37점(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1]의 연구 2.32점, Lee[22]의 연구 2.35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영역에서는 동조성과 공격성이 높고 회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 [22] 동조성이 가장 높고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동조성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대를 반영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공격성은 타인에게 맞섬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원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동조성과 공격성의 대인관계문제를 낮추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타인과의 친밀하고 의미 있는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심리, 사회적으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므로[11]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SNS중독경향성이 클수록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자기표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0]에서 자기표현성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자기표현의 기본요소는 언어적 측면뿐 만 비언어적 측면인 음성, 억양 등이 기본적인 요소[23]로 SNS를 통한 자기표현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기본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10]에서는 현실세계에서 자기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성의 관계의 방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5]에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SNS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항상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 세계에서의 대인관계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며 대인관계문제를 더욱 야기하므로[24], SNS중독경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반면 선행연구[25]에서 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실제 대인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SNS를 통한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r=-.459, p<.001$ ), 자기표현을 못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26]와 일치한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적절한 자기표현으로 대학생들의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은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SNS중독경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SNS중독경

향성을 낮추고 자기표현을 높이고 대인관계 문제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은 5점 만점에 2.22점, 자기표현은 5점 만점에 3.14점, 대인관계문제는 5점 만점에 2.37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자기표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148, p<.05$ ),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34, p<.001$ )를 보였고,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459, p<.001$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S. M. Kim, K. H. Suh,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3), pp. 587-603, 2015.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3.006>
-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2014. [http://www.nia.or.kr/bbs/board\\_list.asp?boardid=201408061323065914&order=020404](http://www.nia.or.kr/bbs/board_list.asp?boardid=201408061323065914&order=020404)
- [3]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09 Internet Use Survey"
- [4] S. P. Park, H. S. Hwang,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Smart Phone Addiction : Focused on the Application Use of University Students", *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4), 289-311. 2014.
- [5] M. H. Im, "Gender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SNS Use Motivation and Perceived Interactivity and Social Anxiety i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5.
- [5] S. H. Lee, A. R. Go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nstruction of social media addicts of facebook users awareness and engagement as a focal poi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6), pp. 176-210. 2013.
- [6] M. H. Park, J. S. Kim, K. A. Ham, "Effect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steem on SNS addiction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2), pp. 189-206, 2014.
- [7] I. S. Lee, J. Y. Cho,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pp. 2623-2633, 2012.
- [8] K. E. Kim, "The effects of preventive group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elf-expression and the stress redu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2.
- [9] W. J. Jung, Y. H. Baek,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University Students' Self-Expression and the Stress Coping 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30(3), pp. 567-536, 2015.
- [10] Y. Joe,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elf-assertiveness, career decision,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3.
- [11] H. J. Chung,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Empathy on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3.
- [12]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12 Internet Use Survey", 2012
- [13]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diagnostic questionnaire (IADQ). <http://netaddiction.com/>
- [1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elf rating internet addiction scale for adults", 2005. [http://www.iapc.or.kr/dia/survey/addDiaSurveyNew.do?di\\_a\\_type\\_cd=IAAS](http://www.iapc.or.kr/dia/survey/addDiaSurveyNew.do?di_a_type_cd=IAAS)
- [15]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2012.
- [16] S. A. Rathus,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1973. DOI: [http://dx.doi.org/10.1016/s0005-7894\(73\)80120-0](http://dx.doi.org/10.1016/s0005-7894(73)80120-0)
- [17] S. K. Chu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 Sill University, Seoul, 1994.
- [18] Y. H. Kim, Y. K. Kim, Y. R. Cho, J. H. Kwon, S. H. Hong, E. Y. Park, "Validation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C and KIIP-PD",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pp. 391-411, 2002.
- [19] D. H. Choi,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Networks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6.
- [20] S. I. Yan,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for Intimacy betwee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4.
- [21] J. Y. Kim,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s on Learned Helplessnes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5
- [22] D. W. Lee,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in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dergradu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5
- [23] N. H. Choi,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lf-expression and self-control on adaptation to the campus l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24] H. W. Kang, "A Study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of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application of therapeutic recreation through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2(1), pp. 121-133, 2013.
- [25] S. K. Choi, K. T. Kwak, B. G. Lee, "The Study of Influential Effects of Mobile SNS Attachment and Communication Traits to the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the SNS interac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1), pp. 159-200, 2012
- [26] M. Jung, H. K. Kang,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ir style of conflict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pp. 345-352,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3.345>

홍민주(Min Joo Hong)

[정회원]



- 2003년 2월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대처, 소진, 삶의 질

구혜자(Hye-Ja Gu)

[정회원]



- 2008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년, 여성, 기본간호

이외선(Oi-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